



2면

새만금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 나선다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음 11월 14일) 제3412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경기, '새로운 시대 특별한 변화' 준비 협력

‘상생발전 2차 합의문’ 채택

균형발전·지방분권 강화
지속 가능 상생 번영 목표
인공지능·미래차 사업화
교육과정 개발 등 5개 과제
전북특자도 출범 후에도
긴밀한 소통·협력 지속



경기도-전라북도 상호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2차 업무협약식 2023. 12. 22. (금) 15:30 경기도청 5층 서회홀

전북도는 지난 1월 전북도청에서 경기도와 맺은 '상생발전 업무협약'에 이어, 다시 한번 경기도와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22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상생발전 2차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2차 협약식에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 지속 가능한 상생 번영을 목표로 지난 1차에 협약한 8개 과제를 점검하고, 추가 발굴된 협약 과제를 합의문에 반영해 확정했다.

이번 합의사항은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활성화 공동협력, △미래차 사업화 및 실증 협력, △자연유산 국제브랜드 공동 육성, △관광 홍보·마케팅 협력체계 구축, △교육과정 개발 및 정보공유 등으로, 세부 사업은 실행계획을 수립해 구체화 시켜나간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인재양성, 기업지원, 연구개발 등에 협력하고, 미래차 산업육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품개발, 실증사업, 시범평가 등을 공동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북-경기도의 국제적으로 가치가 입증된 자연유산(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을 통해 국제브랜드를 공동 육성하고, 관광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홍보·마케팅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 간 교육과정 개발 및 정보

공유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경기도와는 올해 1월에 이어 두 번째 협약이다"며, "서로 합의한 사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해 앞으로 함께 성공을 위해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전북은 내년 1월 18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고, 경기도 새로운 시대, 특별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서로 잘하는 걸 나누고, 부족한 걸 배우는 동반자로서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성과를 만들어 내자"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양 도가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해외투자유치를 위해서도 공동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후에도 경기도와 협약한 총 13개 과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긴밀한 소통 체계를 통해 상호 협력해 두 지방정부의 특별한 인연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4년 연속 환경부 약취실태조사 공모 선정

전북도는 2024년도 환경부 약취실태조사 공모 결과 정읍시 덕천면이 최종 선정돼, 2021년부터 4년 연속 도내 지역이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2021년 김제 읍지면, 2022년 진안 미령면, 2023년 완주 비룡면

정읍시 덕천면은 축사와 가축분뇨, 폐기물재활용시설 등이 밀집돼 있어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이다.

도와 정읍시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활권 보장을 위해 악취민원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환경부에 약취실태조사를 신청해 이번공모에 선정됐다.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정읍시 덕천면 일원에 대해 악취 측정, 확산 예측 모델링 등 정밀조사를 직접 수행해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김재훈 기자

성탄절 미사 보는 시민들



성탄절을 맞이한 25일, 전주시 전통성당을 찾은 시민들이 성탄절 미사를 드리고 있다.

도민 '반값 택배' 혜택 누릴 수 있을까?

전북연구원,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제안 퍼스트마일 공동 수거·택배 서비스 연계 등이 특성 소상공인·농어가 소량 화물 규모화로 비용 절감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자상거래 판매 증가에 대응한 소상공인 물류 지원 전략으로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를 제안했다.

최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물류 서비스인 택배, 배송 대행 등을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해 법·제도가 정비됐고, 전자상거래와 생활 물류가 결합한 모델은 새로운 표준이 되어 택배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소상공인, 농림어가의 판매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 일부 마을에서는 택배 방문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문 수거의 불편과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또한, 도 내 지역 소상공인 인터뷰

결과, 공산품·가공품 등을 취급하는 중소도시의 소상공인도 전자상거래에 따른 매출 증대를 체감하고 있지만 포장, 라벨링 등 부대 업무 위탁으로 판매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농산어촌 지역의 생활 물류 문제 해법을 마련을 위해 전북도, 익산시, 전북연구원이 수행한 2022년 국토교통부 디지털물류 실증사업 '다이로움 물류 서비스'의 성공 요소인 플랫폼, 공동수거, 택배사 연계 등의 노하우를 전북 지역 특성에 맞게 접목·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소비자 동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응하는 소상공인 역량 강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퍼스트마일 공동 수거, △물류 부대 업무 대행, △택배 서비스 연계 등을 특성으로 한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 전략을 제안했으며, 서비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가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과 정부의 디지털 물류 실증 공모사업을 활용해 초기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이는 도입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책임 맡은 나정호 연구위원은 "전북형 생활 물류 서비스는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한 민관 협력 상생 모델로 소상공인, 농림어가의 소량 화물을 규모화 해 비용을 절감하고, 영세업체가 보유하기 어려운 자동화 설비를 공동 활용해 업무 부담을 줄여준다"며, "이 제안이 안정화되면 전북도민 누구나 반값택배·신속배송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